

삶의 옆자리에서 즐기는 문화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펴낸 김문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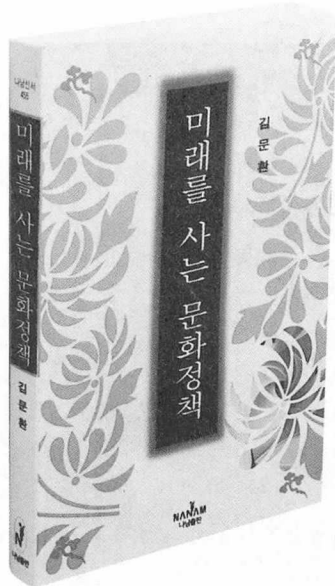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문화정책이 한 사회의 문화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오랜 관심을 가져온 김문환(52, 서울대 미학과)교수가 최근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나남출판)을 펴냈다.

이 책은 특히 그가 문화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직에 부임한 것과 시기를 같이해 출판돼 더욱 관심을 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학자로서는 말과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많은 책임과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는 김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문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는 데 개인적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김교수가 1989년 이래 5년간 관계했던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작업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자의 입장에서 고뇌하고 생각했던 우리 문화정책의 문제들이 현장에 와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는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책에는 우리 문화정책의 현안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우리 문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김교수가 우선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행정이 지나치게 생산자 입장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이 예술부문에 한정돼 있다는 말이다.

유네스코가 설정한 전통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의 분류에 동의하는 김교수는 문화를 인간의 삶의 질과 관계하는 포괄적인 행



위로 파악한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문화의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와 향유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체육의 경우, 국위선양에만 급급한 소수 엘리트 체육에서 사회체육, 생활체육으로 중심점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중매체가 국민들의 문화취향을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을 간과하지 않는다.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소프트웨어의 개발도 서둘러져야 할 과제로 지적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이 국가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문화공간 위주로 펼쳐졌다면 이제 그것과 아울러 삶의 바로 옆자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근문화시설도 개발, 확충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지방자

우리 문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김교수가 우선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행정이 지나치게
생산자 입장에만
치중했다는 점이다.
문화정책은 생산
측면뿐 아니라 소비와
향유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문환 교수.

치단체 주도하에 자기 고장 특유의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발전이 경제 이외의 가치들, 특히 문화적 가치들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전의 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김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정책은 문화정책이라고 말하고, 최소한 국고의 1% 정도는 문화 부문 재정으로 투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월드컵 유치와 관련, 문화외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김교수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 인간적 가치를 억제하는 반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기제도 효과적으로 갖춘 사회”야말로 문화선진국이 아니겠냐고 말한다.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을 즐겨 관람하고 가끔 현장 평론을 쓰기도 하는 김교수의 최근 관심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미학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 최근 펴낸 또 한편의 책 《레오나르도를 되살린다》(신구문화사)는 그러한 관심이 집약된 결실이다.

—박남정 기자

지성의 샘은 이런 책을 만듭니다

세계의 철학

1	이탈리아 철학	이광래 외 편저	6월 출간
2	스칸디나비아 철학	J. S. 펄크 지음 임규정의 옮김	6월 출간
3	라틴아메리카 철학	H. E. 데이비스 지음 우정규 외 옮김	6월 출간
4	아프리카 철학	'97년 출간(2차분)	
5	러시아 철학	'97년 출간(2차분)	
6	동구권 철학	'97년 출간(2차분)	
7	중동 철학	'97년 출간(2차분)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회 지음

독도와 대마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영토인식 문제를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재검토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놓은 최초의 독도 대마도에 관한 저서. 연표 및 독도와 대마도의 고지도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신국판 296쪽, 1,000원)

드라마 작품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인식

하인츠 가이거 외 지음/임호일 옮김

언어를 존재론적 산물이 아닌 사회·역사적 산물로 봄으로써 희곡의 본질 규명에 획기적인 시각을 제시한 이 책은 부록으로 원문이 발췌되어 있어 희곡사의 발전을 넓게 조명해 볼 수 있다.
(신국판 224쪽, 8,000원)

니체와 니힐리즘

하이데거 지음/박찬국 옮김

하이데거는 니체를 근대 형이상학의 정점으로 보며 이에 니체에 있어서 니힐리즘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에서 그는 니힐리즘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것의 극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 392쪽, 13,000원)

도서출판 **지성의샘** 133-120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7 서울제일인쇄조합 301호
전화/(02)4989-011~6 팩시밀리/(02)4989-017 HITEL ID Dymh4989